문학 개념 이해·적용 01

말하는 이와 상황, 정서·태도·어조

연결 개념: 문학 개념 요약 시01·시02

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Ⅱ 어떤 상황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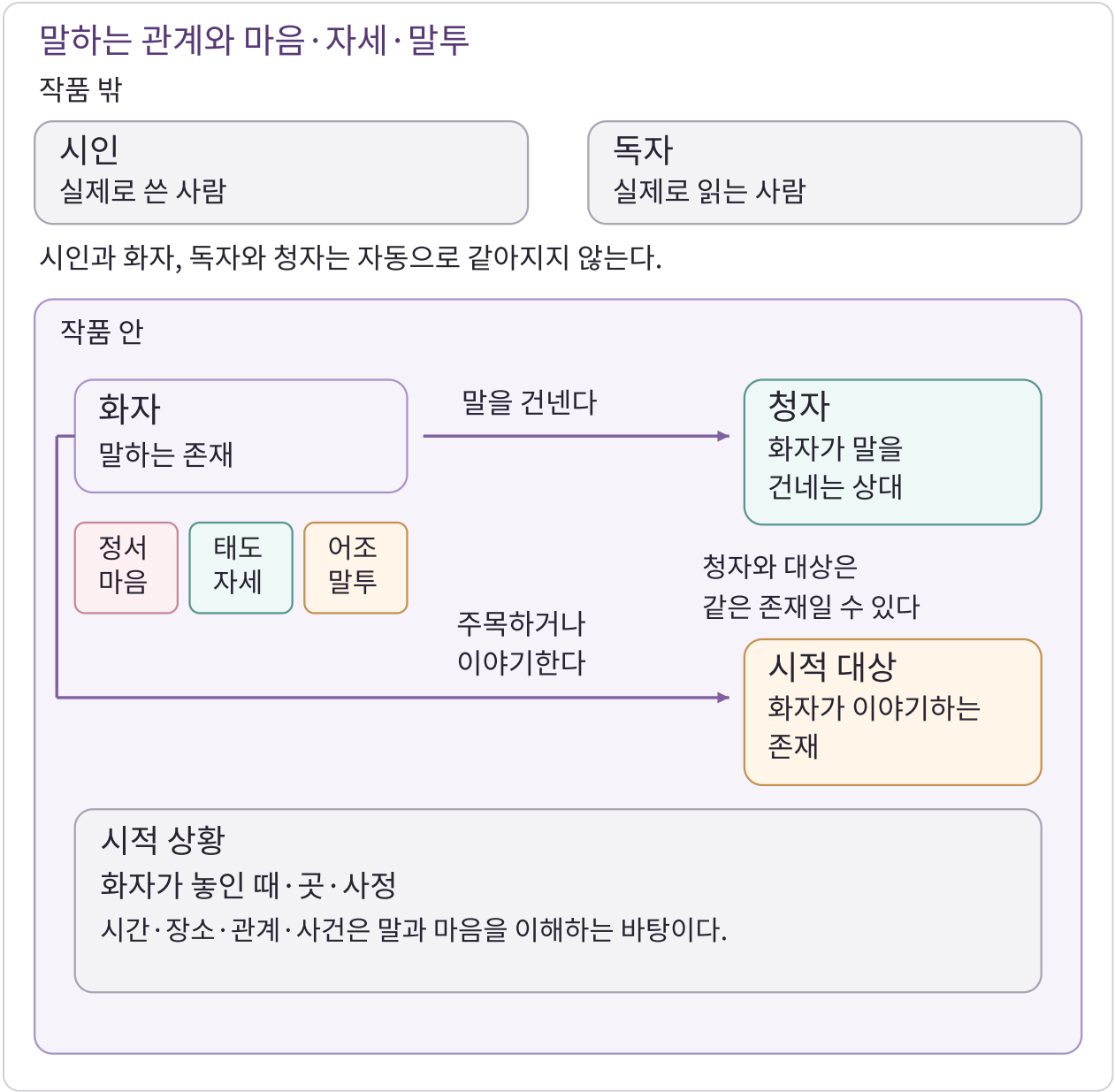
Ⅲ 마음·자세·말투를 나누어 보기

Ⅳ 헷갈리는 태도·어조 말 구별하기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편의 개념 관계



질문	살필 개념
누가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는가?	시인·화자·청자
무엇을 이야기하며,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시적 대상·시적 상황
어떤 마음이며, 어떻게 대하는가?	정서·태도
그 마음과 자세를 어떤 말투로 드러내는가?	어조

1 궁금한 점을 풀어 보는 개념 설명

이 편의 예문과 문제 지문은 학습용으로 새로 쓴 글이다.

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E01 ‘나’가 없으면 화자도 없나요?

요약집 연결: 시01-01 · 시01-02

‘나’라는 말이 없어도 화자(말하는 이, 시적 화자)는 있습니다.

예와 판단

운동장이 비었다.
아직도 공이 굴러오기를 기다린다.

구별	예와 판단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나는 공을 기다린다’처럼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말이 나온다. ‘우리’도 화자를 포함하면 단서가 된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위 예에는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말이 없지만, 운동장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목소리는 있다.
시인과 화자	시인은 실제로 시를 쓴 사람이고, 화자는 시 안에서 말하는 존재다. 둘의 경험이 겹칠 수는 있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를 존재하지 않는 화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시인의 나이·성별·경력을 작품의 근거 없이 화자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E02 따옴표 속 ‘나’도 시 전체의 화자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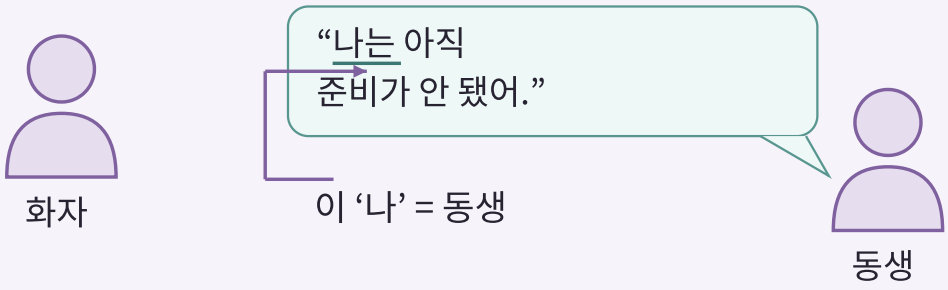
인용된 말의 주인과 그 말을 전하는 화자를 구별합니다.

예와 판단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동생이 말했다.
나는 동생의 가방 옆에 앉았다.

말풍선 속 '나'와 말풍선 밖 '나'

동생의 말을 화자가 전한다



말풍선 밖에서 화자가 하는 말

나는 동생의 가방 옆에 앉았다.

이 '나' = 화자

같은 '나'라도 누가 한 말인지에 따라 가리키는 존재가 다르다.

표현	가리키는 존재
따옴표 안의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 동생
따옴표 밖의 '나는'	동생의 말을 전하며 곁에 앉는 화자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나'라는 글자가 같아도 누가 한 말인지에 따라 가리키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E03 청자는 시를 읽는 독자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1-03 · 시01-04

청자(듣는 이)는 작품 안에서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입니다.

예와 판단

예	판단
연필아, 오늘도 내 서툰 말을 받아 주렴.	연필을 불러 말을 건넨다. 사람이 아닌 존재도 청자로 설정될 수 있다.
닳은 연필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연필에 주목하지만 연필에게 말을 건네지는 않는다.

독자는 실제로 작품을 읽는 사람입니다. 독자가 청자 자리에 놓이도록 쓴 작품도 있지만 둘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연필아'처럼 부르는 말이 있어도 상대의 응답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화가 오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인용된 말의 청자를 시 전체 화자의 청자로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E04 청자와 시적 대상은 같은 존재일 수 있나요?

요약집 연결: 시01-03 · 시01-04

같은 존재가 청자와 시적 대상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와 판단

예	청자: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	시적 대상: 화자가 주목하거나 이야기하는 존재
누나야, 나는 오늘 너의 씩씩한 걸음을 떠올렸어.	**누나**	**누나**
누나야, 학교의 오래된 종 이야기를 들어 봐.	**누나**	**종**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청자와 대상을 반드시 서로 다른 존재로 나누지 않습니다.
- 시적 대상을 사람·사물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사건·생각이나 화자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자와 대상이 겹칠 때, 다를 때

같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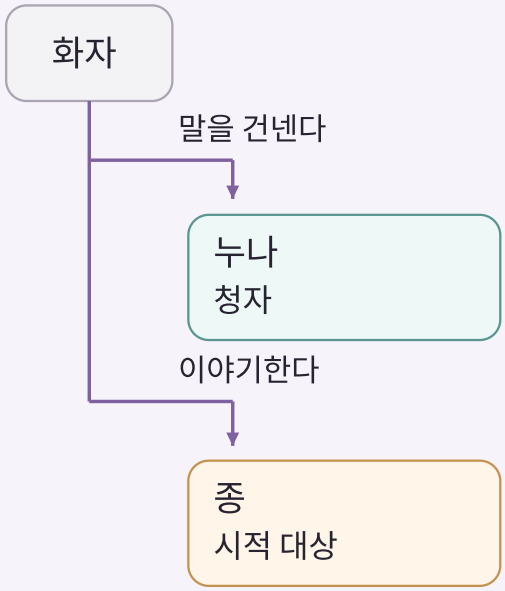
누나야, 나는 오늘
너의 씩씩한 걸음을 떠올렸어.



누나가 두 역할을 함께 함

서로 다른 존재

누나야, 학교의 오래된 종
이야기를 들어 봐.



누나에게 종을 이야기함

대상에는 사람·사물뿐 아니라 사건·생각·화자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

II 어떤 상황인가

E05 시적 상황은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나요?

요약집 연결: 시01-05

시간·장소·관계·사건 가운데 작품에서 확인되는 것을 연결합니다.

예와 판단

비가 그친 새벽,
문 닫힌 수영장 앞에서
약속한 친구를 기다린다.

작품에서 확인됨	작품에 나오지 않음
새벽, 수영장 앞, 약속한 친구를 기다림	친구가 늦는 까닭, 두 사람이 다툰 일, 정확한 계절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작품에 빠진 사연을 아는 것처럼 채워 넣지 않습니다.
- '작품에 제시되지 않음'을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III 마음·자세·말투를 나누어 보기

E06 정서·태도·어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01 · 시02-02 · 시02-03

느끼는 마음이 정서, 대상·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태도, 그것이 드러나는 말투가 어조입니다.

예와 판단

결과가 아쉬워 눈물이 났다.
그래도 다음 무대에는 다시 서겠다.

기준	예의 판단
정서	'아쉬워 눈물이 났다'에서 아쉬움이 드러난다.
태도	'다시 서겠다'에서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어조	'다시 서겠다'처럼 딱 잘라 다짐하는 말끝에서 단호한 어조가 드러난다. 말투, 곧 목소리의 느낌은 말끝(종결 표현)과 낱말 선택을 문맥에 연결해 살핀다.

같은 장면을 세 기준으로 살핀다

결과가 아쉬워 눈물이 났다.
그래도 다음 무대에는 다시 서겠다.

정서
느끼는 마음

아쉬움

근거:
아쉬워 눈물이 났다

태도
대하는 자세

다시 도전할 의지

근거:
다시 서겠다

어조
말투

단호한 어조

근거: -겠다
(이 문맥의 다짐)

아쉬움과 의지는 함께 드러날 수 있다.

이 예의 '-겠다'는 딱 잘라 다짐하는 말끝이다.
말끝 하나만 떼지 않고 낱말 선택과 문맥을 함께 본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정서가 슬프다는 이유만으로 태도까지 포기하는 쪽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표현이 여러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성찰적' 등을 태도나 어조 한 범주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E07 감정 단어가 없으면 정서를 알 수 없나요?

요약집 연결: 시02-01 · 시01-05

감정 단어뿐 아니라 상황과 말·행동도 정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와 판단

표현과 상황	뒷받침되는 마음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뒤 길게 숨을 내쉬었다.	걱정이 풀리는 안도
떠난 친구가 쓰던 우산을 꺼내 놓고 함께 걷던 길을 떠올린다.	친구를 향한 그리움

가까워 보여도 다른 말	뜻의 초점
그리움 / 외로움	만나거나 되찾고 싶은 마음 / 홀로이거나 관계가 끊긴 듯한 쓸쓸함
그리움 / 동경	어떤 대상을 보고 싶어 하며 마음에 떠올림 / 어떤 대상·삶을 간절히 바라며 우러름
연민 / 안타까움	상대를 가엾고 불쌍하게 여김 / 뜻대로 되지 않거나 딱한 사정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아픔
안도 / 만족	걱정이 풀림 / 바라는 것이 채워졌다고 느낌
아쉬움 / 원망	기대에 못 미치거나 떠나보내기 서운함 / 잘못이나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 못마땅해함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한숨만으로 실망을, 눈물만으로 슬픔을 정하지 않고 그 반응이 나온 상황을 확인합니다.

E08 마음이 바뀐 것과 여러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01 · 시02-02 · 시01-05

시간에 따른 변화인지, 같은 순간에 함께 드러나는 마음인지 확인합니다.

예와 판단

예	확인되는 관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골목이 정겹다.	시간에 따른 인식·감정의 변화
새 출발이 설레면서도 가족과 떨어질 생각에 서운하다.	같은 순간에 두 감정이 함께 나타남
친구는 두렵다고 했다. 나는 기대가 되었다.	두려움과 기대의 주체가 다름

마음이 바뀜과 여러 마음이 함께 있음

변화 — 시간에 따라 달라짐

처음: 낯섦 → 시간 → 이제: 정겨움

대상은 같은 골목이다.

공존 — 같은 순간에 함께 느낌

설렘: 새 출발을 향한 마음

서운함: 가족과 떨어질 생각

확인할 질문

- 누구의 마음?
- 무엇을 향한 마음?
- 언제의 마음?

친구의 두려움과 화자의 기대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
인용된 남의 마음을 화자의 마음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뒤에 나온 감정이 앞의 감정을 반드시 없애거나 바꾼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누구의 마음인지·무엇을 향한 마음인지·언제의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남의 감정을 화자에게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IV 헷갈리는 태도·어조 말 구별하기

E09 수용하면 포기한 것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31 · 시02-32 · 시02-33 · 시02-22 · 시02-23

>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뜻을 접는 것은 구별합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수용적	생긴 일이나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임	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한다.
순응적	주어진 흐름·조건에 거스르지 않고 따름	길이 굽으면 그 굽이를 따라 걸어간다.
체념적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 기대·뜻을 접음	내 힘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시도를 그만둔다.
의지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려는 뜻을 드러냄	서툴러도 매일 한 줄씩 다시 써 보겠다.
저항적	부당함이나 강요에 맞섬	거짓말을 하라는 요구에는 따르지 않겠다.

이미 다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한다.
천천히 다시 걷는 연습을 하겠다.

부당한 규칙은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
바뀔 때까지 문제를 알리겠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수용과 의지, 저항과 의지는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로 배척하는 말로 외우지 않습니다.
- 다섯 말을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서로 외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태도

질문 1 일어난 일·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대하는가?
받아들임(수용) / 흐름·조건에 따름(순응)
부당함·강요에 맞섬(저항)

질문 2 내 뜻은 어떻게 되는가?
이어 감(의지) /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 접음(체념)

이미 다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한다.
천천히 다시 걷는 연습을 하겠다.

- 질문 1의 답: 받아들임: 수용
- 질문 2의 답: 다시 이루려는 뜻: 의지

부당한 규칙은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
바꿀 때까지 문제를 알리겠다.

- 질문 1의 답: 부당함에 맞섬: 저항
- 질문 2의 답: 끝까지 하려는 뜻: 의지

다섯 태도는 하나의 강도 순서가 아니다.

E10 낙관적이면 낙천적인가요? 비관과 절망은 같은가요?

요약집 연결: 시02-05 · 시02-06 · 시02-20 · 시02-21

앞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와 삶을 어떤 성향으로 대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낙관적	앞으로 잘되리라고 전망함	고장 난 시계도 손보면 다시 움직일 것이다.
낙천적	평소 삶을 밝고 즐겁게 대함	사소한 즐거움을 찾아 하루하루 유쾌하게 지낸다.
비관적	앞날이 좋지 않으리라고 전망함	내년에는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절망적	희망·가능성이 없다고 느낌	빠져나갈 길도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느낀다.

앞날에 대한 전망과 평소 삶의 성향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

앞날이 잘될 것이다	⟷	앞날이 나쁠 것이다
낙관		비관

절망
희망·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느낌

비관한다고 모두 절망은 아니다.

평소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 낙천
사소한 즐거움을 찾아 밝고 유쾌하게 지내는 성향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모든 가능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 결말을 걱정하더라도 시도할 의지는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E11 긍정·예찬, 부정·비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요약집 연결: 시02-04 · 시02-08 · 시02-18 · 시02-19

가치를 인정하는지, 높이 기리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문제를 따지는지 살핍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긍정적	가치·가능성을 인정함	거친 초안에도 새로운 생각이 담겨 있다.
예찬적	훌륭함·아름다움을 높이 기림	남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네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
부정적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봄	경쟁만 남은 이 풍경이 못마땅하다.
비판적	잘못·모순·문제점을 따져 드러냄	함께 정한 규칙을 대표만 어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예찬에는 긍정적 평가가, 비판에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 한 작품에서도 평가 대상이 다르면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E12 과거를 떠올리면 반성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34 · 시02-11 · 시02-10

지난 일을 떠올리는지, 자신을 살피는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지 확인합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회고적·회상적	지난 일을 떠올림	오래전 아버지와 돌을 고르던 강가가 생각난다.
성찰적	자신의 삶·마음·행동을 돌아보고 살핌	내가 지켜 온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헤아린다.
반성적	어떤 잘못·부족함인지 드러나고, 그것을 스스로 돌아봄	친구의 말을 끊었던 내 성급함을 뉘우친다.

'반성'을 넓게 '자신을 돌아봄'의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 편의 문제에서는 자신의 잘못·부족함을 스스로 돌아보는 경우를 반성으로 판단합니다.**

과거를 떠올림과 자신을 돌아봄

회고·회상
지난 일을 떠올린다. 기억만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성찰: 자신의 삶·마음·행동을 돌아보고 살핌
예: 내가 지켜 온 약속의 의미를 헤아린다.

반성: 자신의 잘못·부족함을 돌아봄
예: 친구의 말을 끊었던 내 성급함을 뉘우친다.

회상과 성찰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반성도 넓은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잘못을 돌아보는 뜻에 초점을 둔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지난 일을 떠올리기만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잘못을 돌아보는 반성은 성찰의 한 종류이므로 둘을 반대말로 보지 않습니다.

E13 조용히 바라보면 모두 관조·달관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12 · 시02-13 · 시02-14 · 시02-15

조용하다는 겉모습보다 대상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관조적	대상을 차분히 바라보며 의미를 음미함	천천히 옮겨 가는 그늘을 보며 하루의 흐름을 생각한다.
달관적	삶의 이치·한계를 이해하여 얻고 잃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음	만남과 헤어짐이 삶의 일부임을 알아 지나간 일에 마음을 휘둘리지 않는다.
초월적	현실의 한계·고통·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음	좁은 방에 몸은 머물러도 마음은 그 벽에 갇히지 않고 끝없는 하늘을 누빈다.
탈속적	세속의 명예·이익·번잡함을 벗어나려 함	이름을 높이려는 다툼을 떠나 소박하게 살고 싶다.

혼동	구별할 점
관조와 무관심	관조는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차분히 바라보고 의미를 음미하는 자세다.
달관과 체념	삶을 이해한 평정과, 불가능하다고 여겨 뜻을 접는 것은 구별한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산에 있다는 장소 정보만으로 탈속적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 초월적 태도와 의지적 태도는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E14 바란다는 말은 모두 같은 뜻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07 · 시02-35 · 시02-36

바라는 삶의 모습, 간절한 바람, 진리를 찾는 자세를 구별합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이상적(이상 지향적)	바람직하고 완전한 상태인 이상을 꿈꾸고 추구함	누구의 목소리도 함부로 지워지지 않는 마을을 꿈꾼다.
기원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	부디 네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구도적	진리나 삶의 근본 이치를 찾음	옳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 묻고 답을 찾아간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이상적 지향과 기원적 성격은 바람직한 세상을 간절히 바라는 표현에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생활 정보 하나를 묻는 일을 곧바로 구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15 슬픈 말과 감정이 격한 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요약집 연결: 시02-16 · 시02-17 · 시02-09 · 시02-03

어떤 감정인가(종류), 얼마나 세게 드러나는가(세기), 감탄하는 말로 드러내는가(방식)를 따로 봅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애상적	슬프고 안타까운 정서가 두드러짐	다시 듣지 못할 목소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린다.
격정적	감정이 거세고 격렬하게 터져 나옴	억울함을 참지 못해 목청껏 외치며 몸을 떤다.
영탄적	감탄하는 표현 등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아, 이토록 눈부신 아침을 다시 맞다니!
담담한 어조(보충)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함	네가 떠나 허전하다. 오늘은 네 빈자리를 정리했다.

감탄사 '아·오', 감탄하는 말끝 '-구나··다니', '그대여'처럼 높여 부르는 말은 영탄을 살필 단서입니다.

같은 슬픔도 담담하게 말할 수 있고 격정적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애상적이면서 격정적일 수도 있고 담담하게 슬픔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 감탄사·말끝·느낌표 하나로 영탄 여부나 감정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문맥에서 감정이 고조되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의 종류·세기·표현 방식을 나누어 본다

두 예의 정서: 슬픔·허전함 — 애상적

담담하게

네가 떠나 허전하다.
오늘은 네 빈자리를 정리했다.

격정적으로

너를 떠나보낸 슬픔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

같은 정서도 차분하게 또는 격렬하게 드러낼 수 있다.

감탄하는 말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가? — 영탄적

예: 아, 이토록 눈부신 아침을 다시 맞다니!

감탄사·감탄하는 말끝 등을 문맥과 함께 살핀다.

감탄 표현이 있다고 언제나 슬프거나 격정적인 것은 아니다.

E16 단정·명령·회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집 연결: 시02-24 · 시02-25 · 시02-26

확실하다고 말하는가, 행동을 요구하는가, 믿음·가치를 의심하는가를 살핍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단정적	확실하다는 듯 말함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진다.
명령적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함	지금 그 거짓 기록을 지워라.
회의적	믿음이나 가치가 타당한지 의심함	이토록 불공정한 결과를 노력의 보상이라 믿어도 되는가.

구별할 점	판단
단정하는 말투 / 실제 사실	확실하다는 듯 말해도 그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명령 / 정서	행동을 요구하는 말에는 분노뿐 아니라 격려나 걱정이 담길 수도 있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다음 배는 몇 시에 오나요?'처럼 정보를 구하는 질문은 물음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적 어조가 되지 않습니다.

E17 웃음이 나오면 해학인가요, 풍자인가요?

요약집 연결: 시02-30 · 시02-29 · 시02-27 · 시02-28

웃음의 대상, 비판 내용, 비웃는 말투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와 판단

말	이것이 보이면	예
해학적	익살과 재미로 웃음을 유발함	찢어진 장갑을 보고 "엄지에게 창문을 내 주었지" 하며 웃는다.
풍자적	모순·부정을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드러내 비판함	절약 표어를 크게 붙이느라 새 종이를 산더미처럼 버린다.
냉소적	대상을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김	또 그럴듯한 약속이군. 저 빈말에 누가 속겠어.
자조적	자기 처지·한계를 스스로 비웃음	큰소리는 혼자 다 치고 뒤에 숨은 내 꼴이 가관이구나.

웃음의 방향·내용·말투를 함께 살핀다

1. 누구를 향하는가? — 남·세상 / 자기 자신
2. 어떤 내용인가? — 모순이나 잘못을 비판하는가?
3. 어떤 말투인가? — 익살스럽게 / 차갑게 / 스스로를 비웃으며

↓ 여러 기준을 함께 확인

해학

향함: 누구든
비판: 중심 아님
말투: 익살스럽게

풍자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풍자

향함: 주로 남·세상
비판: 있음
말투: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모순·부정을 드러내 비판한다.

냉소

향함: 주로 남·세상
비판: 있을 수 있음
말투: 차갑게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긴다.

자조

향함: 자기 자신
비판: 자기 처지·한계
말투: 스스로 비웃으며

스스로 비웃는 표현을 확인한다.

한 표현에 둘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방향이나 비판 유무 하나만으로 한 칸에 고정하지 않는다.

혼동	구별할 점
비판 / 냉소	문제를 지적했는지와 차갑게 비웃는 말투인지는 따로 살핀다.
돌아봄 / 자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비웃는 표현이 있는지 살핀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자기를 이야기하거나 남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웃음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한 표현에 웃음과 비판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네 말을 서로 배척하는 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E18 ‘고백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요약집 연결: 시02-03

고백적이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이나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는 성격을 뜻합니다.

예와 판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네가 칭찬받을 때마다 부러웠다.

근거	판단
말하지 못했던 부러움을 직접 밝힘	숨겨 두었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므로 고백적이다.
쓰임	‘고백적 어조’처럼 어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기본 확인

LM01-Q01 **이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새벽 부엌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
타일 위로 작은 울림이 번진다.

① 물방울은 떨어지고 있으므로 화자이다.
② '나'가 없으므로 화자도 없다.
③ 부엌의 모습을 전하는 화자가 있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이다.
④ 시인이 실제로 새벽마다 요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답 ☐

LM01-Q02 **시인과 화자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시인은 실제 창작자이고, 화자는 작품 안에서 말하는 존재이다.
② 화자의 모든 말을 시인이 실제로 했던 말로 보아야 한다.
③ 시인의 실제 경험이 바탕이면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④ 시인이 성인이면 화자도 성인이다.

답 ☐

LM01-Q03 **따옴표 안 "나는"이 가리키는 존재를 쓰시오.**

"나는 이 마을이 처음이야." 친구가 말했다.
나는 친구에게 골목을 안내했다.

답 _____

LM01-Q04 **이 글에서 청자로 설정된 존재는?**

낡은 열쇠야, 서랍에서 조금만 기다려 다오.
아침이면 너를 데리고 새 문을 열러 갈 테니.

① 아침
② 서랍
③ 낡은 열쇠
④ 집 안의 모든 사람

답 ☐

LM01-Q05 **이 글에서 동생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동생아, 네 손은 참 부지런하구나.
떨어진 단추를 달고 내 소매까지 살피는구나.

① 청자이지만 시적 대상은 아니다.
② 시를 창작한 실제 사람이다.
③ 청자이면서 시적 대상이다.
④ 시적 대상이지만 청자는 아니다.

답 ☐

LM01-Q06 **이 글만으로 확인되는 시적 상황은?**

저녁 불이 하나둘 켜진다.
나는 문 앞에서 동생의 발소리를 기다린다.

① 동생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다.
② 저녁에 화자가 문 앞에서 동생을 기다린다.
③ 동생이 화자에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
④ 화자가 동생을 만나는 일을 포기했다.

답 ☐

LM01-Q07 **“친구가 돌아와서 기쁘다”에서 ‘기쁘다’는 무엇을 직접 나타내는가?**

① 말을 건네는 상대
② 시인이 살았던 시대
③ 화자의 나이
④ 화자가 느끼는 정서

답 ☐

LM01-Q08 **두 번째 행이 직접 드러내는 태도는?**

틀린 곳을 보니 속상하다.
그래도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 보겠다.

①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며 모든 시도를 접음
②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차갑게 비웃음
③ 주어진 흐름을 그대로 따르려는 순응
④ 실패 뒤에도 다시 시도하려는 의지

답 ☐

LM01-Q09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는 문장을 찾아 그대로 쓰시오.**

찬바람이 들어온다. 그 문을 닫아라.

답 _____

LM01-Q10 **이 글의 감정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새 기숙사 생활이 설렌다.
가족과 떨어질 생각에는 서운하다.
두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① 설렘은 말투이므로 정서로 볼 수 없다.
② 같은 순간에 기대와 서운함이 함께 나타난다.
③ 가족이 기대하고 화자는 서운해한다.
④ 처음의 기대가 사라지고 서운함만 남는다.

답 ( )

3 헷갈리는 사례 비교

받아들임과 뜻 Q11~Q13

LM01-Q11 **이 글의 결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라진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장씩 새 기록을 모으겠다.

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시도를 접었다.
② 기록이 사라진 일을 인정하면서 새 기록을 만들 의지도 보인다.
③ 시도하겠다고 했으므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현실을 인정했으므로 의지는 없다.

답 ( )

LM01-Q12 **(가)와 달리 (나)를 체념적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는?**

(가) 물길이 바뀌면 그 굽이를 따라 배를 저으리라.
(나) 어디로 가도 소용없으니 이제 길 찾기를 그만두리라.

① 어떤 길도 소용없다고 여기며 길 찾기를 그만둠
② 말하는 존재가 직접 드러나지 않음
③ 둘 다 “길”을 이야기함
④ 물의 방향을 따라감

답 ____

LM01-Q13 **이 글에 함께 나타나는 두 태도는?**

거짓을 증언하라는 요구에는 따르지 않겠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가 본 사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① 관조적·달관적 ② 저항적·의지적 ③ 수용적·체념적 ④ 낙관적·낙천적

답 ____

앞날을 보는 눈 Q14~Q15

LM01-Q14 **(가)와 (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지금은 얽힌 일이 많지만 차례로 풀어 가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나) 나는 사소한 즐거움을 찾아 하루하루 유쾌하게 지낸다.

① (가) 낙천적 — (나) 낙관적
② (가) 낙관적 — (나) 낙천적
③ (가) 비관적 — (나) 낙천적
④ (가) 낙관적 — (나) 절망적

답 ____

LM01-Q15 **(나)를 (가)와 구별해 '절망적'이라고 설명할 때의 근거는?**

(가) 내일도 사정이 나빠질 것 같다. 다만 해결할 방법은 더 찾아볼 생각이다.
(나) 이 막막함을 벗어날 가능성도, 붙잡을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느낀다.

①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해서
② 내일에 관해 말하고 있어서
③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④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남지 않았다고 느껴서

답 ☐

평가하는 태도 Q16~Q18

LM01-Q16 **(가)에 비해 (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태도는?**

(가) 네가 나눈 작은 도움이 이웃에게 힘이 된다.
(나) 남의 추위를 자기 일처럼 살피는 네 마음은 더없이 귀하고 아름답다.

① 문제점을 따지는 비판
② 대상에 대한 냉소
③ 대상의 가치를 높이 기리는 예찬
④ 자신의 한계를 비웃는 자조

답 ☐

LM01-Q17 **이 글을 '비판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모두에게 한 차례씩 기회를 준다던 대표가
자기 편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내주었다.
공평하다는 그 규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서
②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회상해서
③ 미래의 실패를 예상해서
④ 공동 규칙과 대표의 행동 사이의 모순을 지적해서

답 ☐

LM01-Q18 **(가)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배분 기준을 공개하고 고쳐야 한다.
(나) 참 대단한 배분이군. 또 자기들 주머니부터 채웠으니. 그럴듯한 말은 잘도 한다.

① 둘 다 문제를 지적하지만 (나)에는 차갑게 비웃는 말투도 드러난다.
② (가)는 잘못을 지적하므로 반드시 냉소적이다.
③ (나)는 비웃으므로 제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
④ 두 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다.

답 ☐

돌아봄 Q19~Q20

LM01-Q19 **이 글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초등학교 뒤편에는 작은 분수대가 있었다.
여름 점심시간이면 우리는 그 가장자리에 발을 담갔다.
그날의 찬물이 문득 생각난다.

① 과거를 떠올렸으므로 반드시 체념적이다.
② 과거를 떠올리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는 근거는 없다.
③ 미래의 일이 잘되리라고 전망한다.
④ 자기 잘못을 구체적으로 뉘우친다.

답 ☐

LM01-Q20 **(나)를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고 판단하는 직접 근거는?**

(가) 내가 오래 지켜 온 선택들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나) 네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론부터 내린 내 잘못을 이제 뉘우친다.

① 두 글 모두 '내가'를 사용한다.
② 지나간 일을 떠올린다.
③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④ 질문의 형식으로 생각한다.

답 ☐

조용한 태도들 Q21~Q24

LM01-Q21 **이 글을 '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말없이 잎이 내려앉는 자리를 바라본다.
급히 붙잡지 않고, 한 계절이 물러나는 모습을 오래 생각한다.

① 나뭇잎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② 세상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③ 고통에 휩싸여 소리를 지른다.
④ 잎이 내려앉는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며 변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답 ☐

LM01-Q22 **(가)를 체념보다 달관에 가깝다고 보는 근거는?**

(가) 피고 지는 일이 삶의 일부임을 알고 나니, 얻었다고 들뜨거나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나) 해 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 기대도 노력도 모두 내려놓겠다.

① 삶의 변화를 이해하여 얻고 잃음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② 사건을 바꿀 힘이 없다며 모든 일을 그만둔다.
③ 부당한 강요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④ 대상이 훌륭하다고 높이 기린다.

답 ☐

LM01-Q23 **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탈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① 산길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②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삶을 떠나 소박한 삶을 택한다.
③ 숲에서 친구와 달리기 기록을 겨룬다.
④ 지는 해를 차분히 바라보며 하루가 흘러가는 의미를 생각한다.

답 ☐

LM01-Q24 **이 글에서 초월적 태도(현실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장 직접 보여 주는 부분은?**

작은 방에 오늘도 책상 하나가 놓여 있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도 내 생각의 날개까지 접지는 않겠다.

① 책상 하나가 놓여 있다
② 작은 방에
③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도 내 생각의 날개까지 접지는 않겠다
④ 오늘도

답 ☐

바람 Q25~Q26

LM01-Q25 **'이상적 지향'과 '기원적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누구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빈다.
② 다음 기차가 언제 오는지 물어본다.
③ 이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④ 지난겨울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린다.

답 ☐

LM01-Q26 **구도적 태도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은?**

① 잃어버린 운동화의 주인을 찾는다.
② 점심 식당의 위치를 묻는다.
③ 멀리 떠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빈다.
④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길인지 오랫동안 묻고 답을 찾는다.

답 ☐

감정의 종류와 세기 Q27~Q28

LM01-Q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제 못 듣는 네 목소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나는 조용히 창을 닫는다.
(나) 네가 없다니! 이 아픔을 어찌 견디랴! 나는 목이 쉬도록 네 이름을 부른다.

① (가)는 조용히 말하므로 아무런 정서가 없다.
② 슬픔은 (나)에만 나타난다.
③ 감정을 세게 드러내면 애상적일 수 없다.
④ 두 글 모두 애상적이며, (나)는 감정의 격렬한 표출도 두드러진다.

답 ☐

LM01-Q28 **이 글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격 소식이라니!
가슴이 벅차 말을 이을 수 없구나.

① 감탄하는 말과 문맥에서 벅찬 기쁨을 강하게 드러낸다.
② 기쁨을 표현했으므로 영탄적일 수 없다.
③ 느낌표가 있으므로 분노의 정서가 확정된다.
④ 명령형 종결이므로 명령적 어조이다.

답 ☐

말하는 방식 Q29~Q31

LM01-Q29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를 단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① 확실하다는 듯 망설임 없이 말해서
② 상대에게 행동을 명령해서
③ 성공 가능성을 의심해서
④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이미 증명되어서

답 ☐

LM01-Q30 **같은 명령형이어도 (가)와 (나)에 담긴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가) 넘어질까 걱정된다. 천천히 내려와라.
(나) 네가 애쓴 시간을 믿는다. 자신 있게 나아가라.

① 행동을 요구하는 형식과 그 말에 담긴 마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서
② 명령형은 어떤 정서도 드러낼 수 없어서
③ 정서는 종결 표현 한 글자로 결정되어서
④ 명령형에는 분노만 담겨서

답 ☐

LM01-Q31 **(나)를 회의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가) 첫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나) 남보다 앞서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

① 버스 운행 시간을 확인해서
② 물음표가 사용되어서
③ 남보다 앞서면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옳은지 의심해서
④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해서

답 ☐

웃음과 비웃음 Q32~Q34

LM01-Q32 **(가)와 달리 (나)를 풍자적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핵심 근거는?**

(가) 아버지는 짝짝이 양말을 보더니 “오늘은 두 색깔 팀의 주장이지” 하고 웃었다.
(나) 청렴상을 받은 관리는 상패를 닦을 때마다, 몰래 받은 돈뭉치도 정성껏 먼지를 털었다.

① 웃는 사람이 등장함
② 화자의 성별을 알 수 없음
③ 두 장면 모두 짧은 말로 제시됨
④ 모순된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함

답 ☐

LM01-Q3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와 비교할 때, (나)를 자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가) 맡은 일을 미룬 내 잘못을 인정한다.
(나) 누구보다 부지런하다 떠들더니 아직 이불 속이라니, 나도 참 대단한 일꾼이구나.

① 다른 사람을 칭찬함
②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함
③ 과거 일을 떠올림
④ 큰소리와 실제 행동이 다른 자기 모습을 스스로 비웃음

답 ☐

LM01-Q34 **(가)와 (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근거를 더 살펴보고 싶다.
(나) 또 약속이라니 우습군. 그 가소로운 말에 내가 속을 줄 아나.

① (가)는 약속을 확신하고, (나)는 그 약속을 높이 기린다.
② (가)는 약속을 차갑게 비웃고, (나)는 판단을 유보하며 근거만 살핀다.
③ (가)는 생활 정보를 묻고, (나)는 상대에게 행동을 명령한다.
④ (가)는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며 살피고, (나)는 그 약속을 차갑게 비웃는다.

답 ☐

속마음을 꺼냄 Q35

LM01-Q35 **다음 글을 고백적이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사실은 나도 혼자 돌아오는 밤길이 외로웠다.
괜찮다고 웃었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걸어 주기를 바랐다.

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꾸짖음
②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함
③ 숨겨 두었던 자기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음
④ 자기의 잘못을 반드시 뉘우침

답 ☐

LM01-Q36 **감정의 공존과 변화를 구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처음에는 새 교실이 낯설었다. 이제는 문을 열 때마다 반갑다.
(나) 새 교실이 설레면서도 익숙한 친구들과 떨어져 서운하다.

① (가)는 변화, (나)는 공존이다.
② (가)는 공존, (나)는 변화이다.
③ 두 글 모두 서로 다른 인물의 감정이다.
④ 두 글 모두 앞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답

4 작품 근거 찾기

자료 A 접어 둔 지도 LM01-Q37~Q40

1 수아야, 네가 이사 간 뒤
2 둘이 펴 보던 지도를 혼자 펼친다.
3 네가 그려 넣은 작은 별 앞에서
4 함께 걷던 골목이 몹시 그립다.
5 오늘은 편지에 새로 생긴 가게를 그려 넣는다.
6 멀리 있어도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 가겠다.

LM01-Q37 자료 A **자료 A에서 수아가 청자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은?**

① “수아야” ② “작은 별” ③ “가게” ④ “골목”

답 ☐

LM01-Q38 자료 A **다음 문장에서 자료 A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수아가 / 화자와 다투어서 / 이사 간 뒤 / 화자는 지도를 혼자 펼친다.”

① 수아가
② 화자와 다투어서
③ 이사 간 뒤
④ 화자는 지도를 혼자 펼친다

답 ☐

LM01-Q39 자료 A **자료 A에서 그리움의 정서를 직접 밝히는 행은?**

① 5행 ② 2행 ③ 4행 ④ 1행

답 ☐

LM01-Q40 자료 A **자료 A의 4~6행을 함께 읽은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아가 곧 돌아오리라고 확신한다.
②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이어 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③ 수아를 그리워하므로 편지를 쓰지 못한다.
④ 수아와의 관계를 끝내려 한다.

답 ☐

자료 B 빈 화분

LM01-Q41~Q44

1 어젯밤 바람에 작은 화분이 넘어졌다.
2 부러진 줄기를 세우다 손이 멎었다.
3 살릴 수 없는 가지도 있다는 것을 안다.
4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부러진 부분을 정리한다.
5 그러나 남은 뿌리까지 버리지는 않겠다.
6 다시 흙을 채우고 날마다 돌보리라.

LM01-Q41 자료 B **자료 B에서 화자가 받아들이는 사실은?**

① 바람이 다시는 불지 않는다는 사실
② 어떤 식물도 기를 수 없다는 사실
③ 살릴 수 없는 가지도 있다는 사실
④ 화분의 모든 뿌리가 죽었다는 사실

답 ☐

LM01-Q42 자료 B **자료 B의 화자가 기대와 뜻을 모두 접었다는 설명을 반박하는 직접 근거는?**

① 2·3행 ② 5·6행 ③ 3·4행 ④ 1·2행

답 ☐

LM01-Q43 자료 B **자료 B의 6행에서 “돌보리라”라는 말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사람에게 돌보라고 명령한다.
②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
③ 앞으로 지속할 행동에 대한 다짐을 드러낸다.
④ 화분을 버렸다는 과거 사실을 확인한다.

답 ☐

LM01-Q44 자료 B **자료 B에서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남긴 설명은?**

① 화자는 식물을 기른 일이 잘못이었다고 뉘우친다.
② 화자는 뿌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③ 화자는 분노하여 화분을 일부러 넘어뜨렸다.
④ 화자는 손상을 인정하면서 남은 뿌리를 돌보려 한다.

답 ☐

자료 C 비어 있는 자리 LM01-Q45~Q48

1 모임의 대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했다.
2 그런데 낮은 목소리가 나오면 시계를 두드렸다.
3 자기 말에는 시계도 쉬게 하는 참 너그러운 대표다.
4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어제를 돌아본다.
5 다른 이의 말을 지키지 못한 내 침묵이 부끄럽다.
6 다음 모임에는 그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

LM01-Q45 자료 C **자료 C의 3행이 대표의 너그러움을 그대로 칭찬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① 대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② 화자가 과거 일을 떠올려서
③ 1행의 약속과 2행의 행동이 어긋나고, 3행이 자기 말에만 시간을 쓰는 모습을 비꼬아서
④ 시계가 등장해서

답 ☐

LM01-Q46 자료 C **자료 C에서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의 번호를 쓰시오.**

답 _____

LM01-Q47 자료 C **자료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시계가 등장하므로 시간의 흐름을 관조하는 내용만 있다.
② 대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침묵도 돌아본다.
③ 자기 침묵을 부끄러워하므로 대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자신을 성찰할 수 없다.

답 ☐

LM01-Q48 자료 C **자료 C의 6행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 모임의 대표가 이미 교체되었다.
② 화자는 앞으로 다른 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뜻을 보인다.
③ 다음 모임이 반드시 공정해진다.
④ 화자는 모든 모임 참석을 포기했다.

답 ☐

5 새 지문 적용

자료 D 오래된 작업실 LM01-Q49~Q52

문을 닫은 작업실 앞에서 지난여름을 떠올린다.
서툰 손으로 만든 작은 그릇을 서로 들어 보이던 날이었다.
여럿의 웃음이 빠져나간 문틈을 오늘은 바람이 드나든다.
다시 모이지 못하는 일이 서운하다.
없어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혼자서도 흙을 만져 보려고 종이 위에 그릇 하나를 그린다.
완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내일은 필요한 도구를 찾아볼 생각이다.

LM01-Q49 자료 D **자료 D에서 '회상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은?**

① 완성 여부를 모르는 현재 판단
② 내일 도구를 찾아보려는 계획
③ 혼자서도 작업하려는 결심
④ 지난여름 함께 그릇을 들어 보이던 장면

답 ☐

LM01-Q50 자료 D **자료 D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서운함이 남아 있어도 혼자 작업을 이어 가려 한다.
② 과거가 그리우므로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
③ 작업을 시작하려 하므로 완성을 낙관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④ 마지막에는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명시한다.

답 ☐

LM01-Q51 자료 D **자료 D의 말하는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는 없고 작업실만 제시된다.
②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회상과 계획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을 건네는 청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바람'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④ 지난여름의 모임 사람들이 지금 화자에게 대답한다.

답 ☐

LM01-Q52 자료 D **자료 D의 마지막 두 행을 함께 읽은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② 작업을 완성했으므로 도구가 필요 없어졌다.
③ 성공을 확신해야만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결과를 모르므로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답 ____

자료 E 높은 이름 LM01-Q53~Q56

(가)

제 이름을 높이려 하루 종일 남의 이름을 지우던 사람,
공로를 새길 비석이 모자라다며
남의 몫까지 제 이름으로 빼곡히 채워 놓았다.
그 비석, 참으로 무겁겠다.

(나)

나는 한때 그 무거운 이름을 부러워했다.
누가 나를 알아보는지에만 마음을 쏟았던 날들을 돌아본다.
이제 이름을 다투는 자리에서 물러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조용한 하루를 택하려 한다.

LM01-Q53 자료 E **자료 E (가)의 비판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름 없이 남을 도운 사람
② 무거운 비석을 옮기는 일꾼
③ 기념물을 만들지 않는 마을
④ 다른 사람의 공로까지 자기 것으로 돌리는 사람

답 ____

LM01-Q54 자료 E **자료 E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남보다 이름을 더 높이려 한다.
② 지난 일을 떠올리기만 하며 자기 삶은 살피지 않는다.
③ 남의 인정을 좇았던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삶을 선택하려 한다.
④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며 모든 삶의 의욕을 버린다.

답 ____

LM01-Q55 자료 E **자료 E (나)의 마지막 두 행을 '탈속적'이라고 설명할 때 알맞은 근거는?**

① 산이라는 장소가 나타남
② 이름을 높이려는 다툼을 떠나 소박한 삶을 택함
③ 비석의 크기가 큼
④ 화자가 말수가 적음

답 ☐

LM01-Q56 자료 E **자료 E (가)와 (나)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앞으로도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② 명예를 독차지하거나 좇는 삶을 문제 삼는 시선이 드러난다.
③ 자연에서 얻은 기쁨을 높이 기린다.
④ 타인의 응답을 직접 제시한다.

답 ☐

6 통합 확인

자료 F 돌아온 형 LM01-Q57~Q60

돌아오는 기차가 플랫폼에 멎었다.
오래 자리를 비웠던 형이 문 앞에 섰다.
반가워 달려가면서도 지난밤의 걱정이 목에 남았다.
"나는 괜찮아." 형이 말했다.
형아, 다음에는 늦는다는 말 한 줄만 보내 주렴.
나는 원망 대신 형의 젖은 가방을 받아 들었다.

LM01-Q57 자료 F **자료 F에서 따옴표 안 "나는"이 가리키는 존재는?**

① 기차 기관사
② 시를 읽는 독자
③ 기차를 기다린 화자
④ 형

답 ☐

LM01-Q58 자료 F **자료 F의 마지막 두 행에서 형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시를 쓴 실제 창작자이다.
② 화자에게 말을 건네기만 하므로 시적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청자와 대상 어느 쪽도 아니다.
④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이면서 행동과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다.

답 ☐

LM01-Q59 자료 F **자료 F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는 형의 말을 듣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② 형을 반기는 마음과 남아 있는 걱정이 함께 드러난다.
③ 형은 화자와 싸운 뒤 가출했다가 돌아왔다.
④ 반가워 달려가므로 걱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답 ☐

LM01-Q60 자료 F **자료 F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형의 말이 인용되므로 그 뒤의 모든 말도 형의 말이다.
② 가방을 받아 드는 행동은 형을 벌주겠다는 뜻을 명시한다.
③ “한 줄만 보내 주렴”은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다.
④ 화자는 원망을 앞세우기보다 형에게 부탁하며 가방을 받아 든다.

답 ☐

7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③	21	④	41	③
02	①	22	①	42	②
03	친구	23	②	43	③
04	③	24	③	44	④
05	③	25	①	45	③
06	②	26	④	46	5행
07	④	27	④	47	②
08	④	28	①	48	②
09	그 문을 닫아라	29	①	49	④
10	②	30	①	50	①
11	②	31	③	51	②
12	①	32	④	52	①
13	②	33	④	53	④
14	②	34	④	54	③
15	④	35	③	55	②
16	③	36	①	56	②
17	④	37	①	57	④
18	①	38	②	58	④
19	②	39	③	59	②
20	③	40	②	60	④

LM01-A01 정답 ③

판단 근거 풍경을 전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나·우리'처럼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직접 가리키는 말이 없으므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물방울은 이야기되는 대상이지 말하는 존재로 설정되지 않았다.
②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를 존재하지 않는 화자로 잘못 판단했다.
③	○	풍경을 말하는 화자의 존재와 직접 지칭 여부를 구별했다.
④	×	창작자의 실제 생활을 확인할 정보가 없다.

다시 볼 설명 E01 · 요약집 시01-01 · 시01-02

LM01-A02 정답 ①

판단 근거 두 개념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에서도 작품에 설정된 목소리를 확인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창작자와 작품 안 목소리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했다.
②	×	창작된 말일 수 있으므로 실제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③	×	경험이 겹쳐도 개념상의 역할은 구별한다.
④	×	창작자와 화자의 나이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다시 볼 설명 E01 · 요약집 시01-01 · 시01-02

LM01-A03 정답 친구

판단 근거 "친구가 말했다"가 인용된 말의 주인을 밝힌다. 인용을 전하는 화자의 '나'와 구별한다.

인정 답안 친구 / 처음 마을에 온 친구

다시 볼 설명 E02 · 요약집 시01-01

LM01-A04 정답 ③

판단 근거 "열쇠야"라고 부른 뒤 "기다려 다오"라고 말을 건넨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	서랍은 열쇠가 놓인 곳일 뿐,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가 아니다.
③	○	직접 불러 말을 건네는 상대다.
④	×	집 안의 사람들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3 · 요약집 시01-03

LM01-A05 정답 ③

판단 근거 동생을 부르며 동생의 손과 행동을 이야기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동생에 관해 이야기하므로 대상이기도 하다.
②	×	작품 속 인물을 실제 창작자로 볼 근거가 없다.
③	○	말을 건네는 상대이자 주목하는 대상이다.
④	×	"동생아"라고 직접 말을 건넨다.

다시 볼 설명 E04 · 요약집 시01-03 · 시01-04

LM01-A06 정답 ②

판단 근거 저녁·문 앞·동생을 기다림이 제시되어 있다. 기다리는 까닭은 따로 설명되지 않았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사고라는 원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명시된 시간·장소·관계를 연결했다.
③	×	다툼과 가출을 덧붙였다.
④	×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며 포기 근거가 없다.

다시 볼 설명 E05 · 요약집 시01-05

LM01-A07 정답 ④

판단 근거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청자를 나타내지 않는다.
②	×	창작 시대를 알려 주지 않는다.
③	×	나이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돌아온 친구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 요약집 시02-01

LM01-A08 정답 ④

판단 근거 “다시 해 보겠다”가 앞으로의 시도 의사를 드러낸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시도를 접는다고 하지 않았다.
②	×	비웃는 대상이나 표현이 없다.
③	×	스스로 재도전하겠다는 뜻이 중심이다.
④	○	실패와 별개로 다시 하려는 뜻이 있다.

다시 볼 설명 E06, E09 · 요약집 시02-02 · 시02-22

LM01-A09 정답 그 문을 닫아라

판단 근거 “닫아라”라는 종결 표현이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인정 답안 그 문을 닫아라 / 닫아라. 행동을 요구하는 말끝을 확인하는 문항이므로 ‘닫아라’만 써도 인정하며 문장 부호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6 · 요약집 시02-03 · 시02-25

LM01-A10 정답 ②

판단 근거 새 시작에 대한 설렘과 가족을 떠나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제시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설렘은 정서로 설명할 수 있다.
②	○	두 감정이 공존하는 근거와 맞는다.
③	×	두 감정 모두 화자의 마음이다.
④	×	시간에 따른 대체나 기대의 소멸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8 · 요약집 시02-01

LM01-A11 정답 ②

판단 근거 사라진 일을 인정하는 부분과 새로 모으겠다는 부분이 각각 수용과 의지를 뒷받침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포기 대신 새 시도를 선택했다.
②	○	두 근거를 각각 연결했다.
③	×	다시 시도하는 것과 현실 인정은 양립한다.
④	×	수용과 의지를 배타적으로 처리했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2-31 · 시02-22

LM01-A12 정답 ①

판단 근거 (나)는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뜻을 접는다. (가)는 흐름에 따르는 순응의 모습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포기가 함께 제시되었다.
②	×	화자의 직접 지칭 여부는 태도 구별 기준이 아니다.
③	×	소재가 같다는 것은 체념의 조건이 아니다.
④	×	(가)의 순응적 모습에 해당한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2-32 · 시02-33

LM01-A13 정답 ②

판단 근거 부당한 강요에 따르지 않겠다는 저항과 진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함께 나타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차분한 음미나 삶의 이치에 대한 초연함이 중심이 아니다.
②	○	맞섬과 이루려는 뜻이 각각 확인된다.
③	×	강요를 수용하거나 뜻을 접지 않는다.
④	×	밝은 전망이나 삶의 즐거움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2-23 · 시02-22

LM01-A14 정답 ②

판단 근거 (가)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므로 낙관적이고, (나)는 평소 삶을 밝고 즐겁게 대하므로 낙천적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앞날에 대한 전망과 평소 삶을 대하는 성향을 서로 바꾸었다.
②	○	'나아질 것이다'와 '하루하루 유쾌하게 지낸다'를 각각 바르게 연결했다.
③	×	(가)는 사정이 나빠지리라고 전망하지 않는다.
④	×	(나)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삶을 즐겁게 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다시 볼 설명 E10 · 요약집 시02-05 · 시02-06

LM01-A15 정답 ④

판단 근거 (가)의 좋지 않은 전망과 달리 (나)는 희망·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부정적인 기분 일반과 절망은 다르다.
②	×	시간 대상만으로 절망을 정하지 않는다.
③	×	예상 자체는 낙관·비관 모두에서 가능하다.
④	○	절망의 핵심 조건을 짚었다.

다시 볼 설명 E10 · 요약집 시02-20 · 시02-21

LM01-A16 정답 ③

판단 근거 (나)는 마음의 가치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높이 기린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잘못·모순을 지적하지 않는다.
②	×	차갑게 비웃지 않는다.
③	○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이 높이 기리는 표현이다.
④	×	자기 자신을 비웃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1 · 요약집 시02-04 · 시02-08

LM01-A17 정답 ④

판단 근거 정한 규칙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는 문제를 드러낸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자신의 내밀한 경험보다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②	×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③	×	앞날의 결과에 관한 예상이 아니다.
④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다.

다시 볼 설명 E11 · 요약집 시02-18 · 시02-19

LM01-A18 정답 ①

판단 근거 비판과 냉소는 공존할 수 있으나 모든 비판이 냉소는 아니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지적 내용과 말투를 각각 확인했다.
②	×	비판을 냉소와 동일시했다.
③	×	비웃음 속에서도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
④	×	비판 대상은 화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1, E17 · 요약집 시02-19 · 시02-27

LM01-A19 정답 ②

판단 근거 옛 장면을 회상할 뿐 잘못이나 후회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회상은 기대를 접는 체념과 다르다.
②	○	회상과 잘못에 대한 반성을 구별했다.
③	×	미래 전망이 아니다.
④	×	뉘우치는 잘못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2 · 요약집 시02-34 · 시02-10

LM01-A20 정답 ③

판단 근거 구체적인 잘못과 그 잘못을 돌아보는 마음이 제시된다. (가)도 자신의 삶을 살피는 성찰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자기 지칭만으로 반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②	×	과거 회상만으로 잘못에 대한 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④	×	문장 형식만으로 반성을 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2 · 요약집 시02-10 · 시02-11

LM01-A21 정답 ④

판단 근거 대상을 관찰하면서 시간과 변화의 의미를 음미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오히려 오래 바라보며 의미를 살핀다.
②	×	무의미하다는 판단은 없다.
③	×	감정의 격한 분출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	관찰의 자세와 생각의 내용이 함께 제시된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2-12

LM01-A22 정답 ①

판단 근거 (가)는 삶의 변화를 이해한 평정이고, (나)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 뜻을 접는 모습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삶에 대한 이해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짚었다.
②	×	(나)의 체념을 설명한다.
③	×	저항할 부당한 대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	예찬의 근거는 없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2-13 · 시02-33

LM01-A23 정답 ②

판단 근거 세속의 명예·이익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이 분명하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산이라는 장소만 제시되었다.
②	○	무엇에서 벗어나려는지가 제시되었다.
③	×	장소는 숲이지만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뜻은 없다.
④	×	대상을 차분히 보며 의미를 음미하는 관조적 모습이지만 세속의 명예·이익을 벗어나려는 뜻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2-15

LM01-A24 정답 ③

판단 근거 몸의 제약에 정신까지 얽매이지 않겠다는 초월적 태도가 드러나며, “접지는 않겠다”라는 다짐에는 의지적 태도도 함께 나타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방의 사물 배치에 관한 정보다.
②	×	공간의 크기를 나타낸다.
③	○	제약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태도가 함께 나타난다.
④	×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시 볼 설명 E13, E09 · 요약집 시02-14 · 시02-22

LM01-A25 정답 ①

판단 근거 바람직한 세상의 내용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지향하는 상태와 간절한 바람이 함께 드러난다.
②	×	생활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다.
③	×	희망이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이다.
④	×	회상만 제시되었다.

다시 볼 설명 E14 · 요약집 시02-07 · 시02-35

LM01-A26 정답 ④

판단 근거 삶의 근본적인 이치를 찾아가는 질문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물건의 주인을 찾는 활동이다.
②	×	생활 정보를 구한다.
③	×	가족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원적 모습이며 삶의 근본 이치를 찾는 구도는 아니다.
④	○	진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한다.

다시 볼 설명 E14 · 요약집 시02-36

LM01-A27 정답 ④

판단 근거 두 글 모두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되 표현 강도가 다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담담함은 정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②	×	(가)에도 “마음이 저린다”에 슬픔이 나타난다.
③	×	슬픔의 종류와 표현 강도는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④	○	정서의 공통점과 표출 강도의 차이를 구별했다.

다시 볼 설명 E15 · 요약집 시02-16 · 시02-17 · 시02-03

LM01-A28 정답 ①

판단 근거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과 벅참이 기쁨의 영탄을 뒷받침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감탄 표현과 상황을 함께 보았다.
②	×	영탄에는 기쁨도 포함된다.
③	×	문장 부호만으로 감정의 종류를 정했다.
④	×	상대에게 행동을 명령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5 · 요약집 시02-09 · 시02-01

LM01-A29 정답 ①

판단 근거 단정적 어조는 말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실제 결과가 보장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단정적 말투의 조건에 해당한다.
②	×	요구하는 행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표현한다.
④	×	말투와 실제 사실 여부를 혼동했다.

다시 볼 설명 E16 · 요약집 시02-24

LM01-A30 정답 ①

판단 근거 (가)는 상대를 걱정하고, (나)는 상대를 믿고 격려하면서 행동을 요구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요구 형식과 문맥상 마음을 구별했다.
②	×	명령에도 걱정·격려 등 여러 마음이 담길 수 있다.
③	×	어휘·상황·종결 표현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④	×	분노로 한정할 수 없다.

다시 볼 설명 E16, E06 · 요약집 시02-25 · 시02-01 · 시02-03

LM01-A31 정답 ③

판단 근거 생활 정보의 확인과 믿음·가치에 대한 의심을 구별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가)의 질문 내용이다.
②	×	(가)에도 물음표가 있지만 정보 질문이다.
③	○	의심하는 생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④	×	행동 요구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6 · 요약집 시02-26

LM01-A32 정답 ④

판단 근거 (나)는 청렴을 내세우는 사람의 탐욕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낸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웃음만으로 풍자를 판단하지 않는다.
②	×	화자의 성별과 무관하다.
③	×	글 길이는 풍자의 조건이 아니다.
④	○	비판할 모순과 웃음의 표현이 결합했다.

다시 볼 설명 E17 · 요약집 시02-29 · 시02-30

LM01-A33 정답 ④

판단 근거 (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면서 자기 모습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다.
②	×	인용 여부가 자조의 기준은 아니다.
③	×	회상만으로 자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	자기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 있다.

다시 볼 설명 E17, E12 · 요약집 시02-28 · 시02-10

LM01-A34 정답 ④

판단 근거 (가)는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하며 근거를 더 살피려는 회의적 성격이고, (나)는 “우습군”, “가소로운 말”로 차갑게 비웃는 냉소적 어조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가)는 확신하지 않으며, (나)도 약속을 높이 기리지 않는다.
②	×	의심하며 검토하는 (가)와 차갑게 비웃는 (나)의 특징을 바꾸었다.
③	×	(가)는 단순 생활 정보가 아니라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며, (나)는 행동을 명령하지 않는다.
④	○	(가)의 의심·검토와 (나)의 차가운 비웃음을 각각 확인했다.

다시 볼 설명 E17, E16 · 요약집 시02-27 · 시02-26

LM01-A35 정답 ③

판단 근거 고백의 핵심은 마음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꾸짖는 대상이 없다.
②	×	미래 전망이 중심이 아니다.
③	○	숨겨 두었던 외로운 마음을 직접 말한다.
④	×	잘못이 제시되지 않았고 모든 고백이 반성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8 · 요약집 시02-03

LM01-A36 정답 ①

판단 근거 (가)의 “처음에는/이제는”은 시간 변화, (나)의 “설레면서도”는 공존을 나타낸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각 글의 시간·연결 표현과 맞는다.
②	×	시간 관계를 반대로 읽었다.
③	×	두 글 모두 각 화자 자신의 마음이다.
④	×	(나)에서 감정의 소멸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8 · 요약집 시02-01 · 시02-02

LM01-A37 정답 ①

판단 근거 첫 행에서 수아를 직접 부르며 말을 건넨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수아야’처럼 부르는 말이 말의 상대를 드러낸다.
②	×	지도에 표시된 모양이다.
③	×	편지에 그리는 대상이다.
④	×	함께 걷던 공간이다.

다시 볼 설명 E03 · 요약집 시01-03

LM01-A38 정답 ②

판단 근거 이사 간 사실은 있지만 그 원인이 다툼이라는 근거는 없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1행에 제시된 인물이다.
②	○	제시되지 않은 이사 이유를 덧붙였다.
③	×	1행에서 확인된다.
④	×	2행에서 확인된다.

다시 볼 설명 E05 · 요약집 시01-05

LM01-A39 정답 ③

판단 근거 4행의 “몹시 그립다”가 마음을 직접 표현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편지를 쓰는 행동을 나타낸다.
②	×	그리움과 연결될 행동이지만 감정어를 직접 제시한 행은 아니다.
③	○	정서를 직접 명시한 행이다.
④	×	이사의 상황을 밝힌다.

다시 볼 설명 E07 · 요약집 시02-01

LM01-A40 정답 ②

판단 근거 4행의 “몹시 그립다”는 그리움을, 5행의 편지에 새 소식을 담는 행동과 6행의 이야기를 이어 가겠다는 다짐은 관계를 이어 갈 의지를 뒷받침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귀환 시점이나 귀환에 대한 확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정서와 태도의 공존을 작품 근거로 설명했다.
③	×	5행에서 실제로 편지를 쓰고 있다.
④	×	6행은 관계를 이어 가겠다는 말이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 요약집 시02-01 · 시02-22

LM01-A41 정답 ③

판단 근거 3·4행은 살릴 수 없는 가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날씨 전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능력 전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없다.
③	○	3행의 사실을 4행에서 받아들인다.
④	×	남은 뿌리가 있다는 내용과 다르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2-31 · 시01-05

LM01-A42 정답 ②

판단 근거 남은 뿌리를 지키고 날마다 돌보겠다는 뜻이 드러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손상과 한계를 인식하는 부분이다.
②	○	앞으로의 지속적인 행동 의사가 명확하다.
③	×	현실을 인정하는 내용만으로 전면적인 포기를 반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	손상이 생긴 상황과 반응이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2-33 · 시02-22

LM01-A43 정답 ③

판단 근거 화자 자신이 날마다 돌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다.
②	×	돌봄의 다짐이지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말이 아니다.
③	○	행동의 주체와 앞으로의 다짐을 정확히 읽었다.
④	×	버렸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6, E09 · 요약집 시02-03 · 시02-22 · 시02-25

LM01-A44 정답 ④

판단 근거 손상에 대한 인정과 돌봄의 의지는 확인되지만 성공 확신이나 자기 잘못은 제시되지 않는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성공을 알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
③	×	1행에서 원인은 바람이며 고의라는 근거가 없다.
④	○	3~6행을 근거에 맞게 연결했다.

다시 볼 설명 E05, E09, E12 · 요약집 시02-31 · 시02-22 · 시02-10

LM01-A45 정답 ③

판단 근거 3행은 앞의 불공정한 행동과 연결되어 모순을 비꼬는 역할을 한다. 표현법 이름을 쓰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이름의 유무가 칭찬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②	×	4행의 회상 여부가 3행의 비꼼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③	○	앞뒤 문맥과 모순을 함께 확인했다.
④	×	소재 하나만으로 어조를 정할 수 없다.

다시 볼 설명 E17, E11 · 요약집 시02-29 · 시02-19

LM01-A46 정답 5행

판단 근거 다른 이의 말을 지키지 못한 자기 침묵이 “부끄럽다”고 밝힌다. 4행은 돌아봄의 출발점이고 5행이 잘못에 대한 마음을 직접 밝힌다.

인정 답안 5 / 5행

다시 볼 설명 E12 · 요약집 시02-10 · 시02-11

LM01-A47 정답 ②

판단 근거 1~3행의 타인 비판과 4·5행의 자기 성찰이 함께 나타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시계는 발언 기회의 불공정을 드러내는 맥락에 놓였다.
②	○	대상별 근거를 나누어 확인했다.
③	×	대상이 다른 두 판단을 서로 배척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	비판과 자기 성찰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볼 설명 E11, E12 · 요약집 시02-19 · 시02-11

LM01-A48 정답 ②

판단 근거 화자가 계획한 자기 행동까지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의 변화나 모임 전체의 결과는 확정할 수 없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교체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다짐의 주체와 내용의 범위를 지켰다.
③	×	화자의 다짐만으로 전체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④	×	참석을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5, E09 · 요약집 시02-22 · 시01-05

LM01-A49 정답 ④

판단 근거 지난여름의 장면을 돌이켜 떠올린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다.
②	×	앞으로의 계획이다.
③	×	재도전하려는 뜻이다.
④	○	지나간 일을 재현하는 내용이다.

다시 볼 설명 E12 · 요약집 시02-34

LM01-A50 정답 ①

판단 근거 서운함과 앞으로의 행동 계획이 함께 제시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정서와 태도를 서로 모순 없이 연결했다.
②	×	도구를 찾아보려는 계획을 놓쳤다.
③	×	“완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와 맞지 않는다.
④	×	서운함의 완전한 해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E10 · 요약집 시02-01 · 시02-22 · 시02-05

LM01-A51 정답 ②

판단 근거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나·우리’ 등은 없지만 회상과 계획을 전하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이며, 직접 말을 건네는 상대도 제시되지 않았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목소리를 전하는 화자가 있다.
②	○	화자의 존재와 청자의 구체적 제시 여부를 구별했다.
③	×	바람은 문틈으로 드나드는 대상으로 제시된다.
④	×	현재의 응답 장면은 없다.

다시 볼 설명 E01, E03 · 요약집 시01-01 · 시01-03 · 시01-04

LM01-A52 정답 ①

판단 근거 결과에 대한 유보와 실천 의지가 함께 나타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두 문장의 차이를 그대로 살렸다.
②	×	완성한 사실이 없다.
③	×	확신이 없어도 시도하는 내용과 반대다.
④	×	도구를 찾으려는 계획이 있다.

다시 볼 설명 E16, E09 · 요약집 시02-22 · 시02-24

LM01-A53 정답 ④

판단 근거 남의 이름을 지우고 남의 몫까지 제 이름으로 채우는 행동이 비판의 근거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남의 공로를 빼앗는 대상과 다르다.
②	×	비석을 옮기는 일꾼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마을의 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대상과 문제 행동이 모두 지문에 있다.

다시 볼 설명 E17, E11 · 요약집 시02-29 · 시02-19

LM01-A54 정답 ③

판단 근거 과거의 지향을 성찰하고 이름 다툼에서 물러나 다른 삶을 택하려 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이름을 다투는 자리에서 물러나려 한다.
②	×	“마음을 쏟았던 날들을 돌아본다”는 자기 성찰이다.
③	○	돌아봄과 이후의 선택을 모두 읽었다.
④	×	새로운 삶의 선택이 있고 전면 포기는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2, E13 · 요약집 시02-11 · 시02-15 · 시02-33

LM01-A55 정답 ②

판단 근거 세속적 명예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태도가 근거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산은 제시되지 않았고 장소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
②	○	벗어나려는 대상과 새 지향을 함께 짚었다.
③	×	(가)의 비석 크기는 (나)의 태도를 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④	×	말수 정보는 없으며 조용함만으로 탈속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2-15

LM01-A56 정답 ②

판단 근거 (가)는 타인의 공로 독점을, (나)는 남의 인정만 좇던 자신의 지향을 돌아본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나)는 변화된 삶을 선택하려 한다.
②	○	평가 대상은 다르지만 명예를 향한 삶을 비판적으로 본다.
③	×	자연 예찬이 아니다.
④	×	타인의 응답은 없다.

다시 볼 설명 E11, E12 · 요약집 시02-19 · 시02-11

LM01-A57 정답 ④

판단 근거 "형이 말했다"가 인용의 주인을 밝힌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기관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②	×	독자는 발화자로 제시되지 않았다.
③	×	인용된 발화의 주인과 이를 전하는 화자를 혼동했다.
④	○	인용 문장의 발화자다.

다시 볼 설명 E02 · 요약집 시01-01

LM01-A58 정답 ④

판단 근거 형을 부르며 부탁하고, 형의 가방을 받아 드는 행동을 이야기한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실제 창작자 정보는 없다.
②	×	앞에서 형이 한 말과 마지막 두 행의 관계를 혼동했다.
③	×	말을 건네고 주목하는 대상이다.
④	○	말의 방향과 주목의 대상을 함께 확인했다.

다시 볼 설명 E04 · 요약집 시01-03 · 시01-04

LM01-A59 정답 ②

판단 근거 "반가워 달려가면서도"와 "걱정이 목에 남았다"가 공존을 직접 보여 준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그러한 다짐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감정의 주체와 공존 관계를 정확히 읽었다.
③	×	부재의 이유로 다툼과 가출을 덧붙였다.
④	×	명시된 걱정을 지웠다.

다시 볼 설명 E08, E05 · 요약집 시02-01 · 시01-05

LM01-A60 정답 ④

판단 근거 부탁의 내용과 화자의 행동을 지문에 제시된 범위에서 연결했다.

보기	판단	이유
①	×	따옴표가 끝난 뒤 화자의 목소리로 돌아온다.
②	×	처벌 의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	연락을 부탁하는 내용과 반대다.
④	○	마지막 두 행의 말과 행동에 근거한다.

다시 볼 설명 E06, E16 · 요약집 시02-02 · 시02-03 · 시01-01